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올해처럼 뼈에 새겨지는 날이 있었을까요.

우리 일상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던 코로나19가 경자년 말미에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21세기에 2020년과 같은 환란의 날이 올 것이라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뿌린 씨앗이 재앙으로 돌아온 2020년 경자년을 뒤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내야 할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장애 속에서도 곳곳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선대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평탄한 일상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이자 <호모데우스>의 저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인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할 힘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 힘을 나누고 함께 할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올해보다 더 큰 재앙과 고난은 늘 있어왔습니다. 선대들은 고난의 시기에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오늘을 물려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 모두를 위한 내일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우리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모두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복 많이 짓고 나누는 새해 여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올림

■ 역사 속의 오늘

조선 사람 김경천, 시베리아의 별이 되다(1942년 1월 2일)

2015년 13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암살>은 상업영화라는 외투를 입고 있으면서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영화에 녹여냈다.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은 서로균정서에서 활약한 남자현 선생이 동인(動因)이었고 배우 조진웅이 열연한 속사포가 영화에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식 때 썼다는 시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는 오늘 실존했던 독립운동가 김경천이 자신의 일기 <경천아일록(擎天兒日錄)>에 쓴 글귀이다.

김경천은 1888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부친 김정우와 모친 윤옥연의 5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김정우는 대한제국 육군군기창장으로 일했던 일본 유학파 출신 조선 육군 최고위층 인사였다.

그는 여덟 살 때 서울 사직동으로 이주했고 열 다섯에 경성학당을 졸업했다. 17살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열 아홉에는 육군사관학교 본과에 입학했다. 재학중 경술국치가 일어나 자퇴하려 했으나 독립전쟁을 위해 일본군의 정보를 빼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물 두 살 때 육군사관학교 전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도쿄 제1사단 기병 제1연대에 근무하던 그는 2.8독립선언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그는 1923년 7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9년에 전무후무한 세계적 회의가 열리고 각 소약민족에게도 권리를 준다함에 우리 동경 유학생이 독립운동의 첫소리를 발하였소. 이때 나는 동경에서 사관학교를 마치고 일본육군 기병 제 1연대 시관으로 있을 때이라. 꿈속같이 기쁜 중에도 불보듯 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소. 그리하여 병으로 수유를 얻어가지고 2월 20일에 경성에 도착하니 도처에 공기가 이상스러웠소.”

그는 병가를 얻어내는 뒤 경성으로 간 뒤 육사 3년 후배인 지청천, 이응준과 만났다. 세 사람은 사직동에 있는 김경천의 집에 모여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울분을 나누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국외로 탈출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김경천과 지청천은 1919년 6월 6일 만주로 망명을 단행했다. 일본군 현역 장교의 망명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제는 두 사람의 체포에 혈안이 되었으며, 현상금 5만엔을 내 걸었다. 김경천은 신의주 맞은 편 안동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동비 조달을 위해 노력했으며,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등 동지들을 후원하고자 노력했다.

1919년 말 만주를 떠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한 김경천은 창해청년단의 총사령관을 맡아 시베리아에 이름을 날리게 된다. 1921년에는 수청의병대의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 혁명세력과 연대해 활동하며 소비에트로부터도 인정받게 된다.

1923년 이후부터 블라디보스톡 극동고려사범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국경경비대에 근무하던 중 소비에트 당국의 한인 인텔리 검거정책으로 인해 9월 29일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당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공산당으로 양분되어 있던 조선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상해파 공산당이 대거 검거되며 김경천도 붙잡혔다는 설과 소비에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아서였다는 설이 있다.

이후 2년 6개월간 복역한 후 1939년 2월 석방되었고, 가족을 찾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코민테른 집단농장에서 채소작업원으로서 일하던 중 1939년 4월 인민의 적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한인들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다. 그 해 12월 17일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정강제노동수용소 8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정강제노동수용소에서 복역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부인 유정화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다만 독일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에 실수가 있어 체포된 것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1941년 독소전쟁 발발 후, 김경천은 시베리아로 이감되었고 편지 왕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1942년 1월 2일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1차 검거되어 복역했던 1936년 사건은 1956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1939년 사건은 1959년 역시 무죄가 선고된 후 복권되었으나 그는 이미 17년 전 숨을 놓은 뒤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93년 '정치적 탄압에 의한 희생자의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 근거해 그의 명예를 복원시켰고 조국은 그 뒤 5년이 흐르고 나서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일곱 번째 이야기 “신화와 역사의 간극 1편”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구형왕 무덤 | 유언에 따라 망국의 한 때문에 땅에 묻지 않고 돌로 쌓아 만들었다고 한다.

세상의 일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도있게 마련이다. '하늘의 아들' 김수로왕이 세웠던 가락국도 마침내 10세손 구형왕仇衡王때에 이르러 망하고 말았다. 서기 532년의 일이니 수로왕이 등극한 이후 491년 만에 사라진 가락국 역사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었던 구형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봉분 하나가 지금도 산청의 지리산 자락에 쓸쓸히 남아 있다.

멸망과 함께 가락의 우수한 철기문화와 탁월한 항해술은 신라로 유입되었다. 가락의 왕족들은 대부분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신라의 30대 문무왕文武王 김법민金法敏은 스스로 자신의 15대 조모가 가락 출신임을 밝히고, 수로왕릉의 끊어진 제사를 잇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멸망 과정에서 가락의 불교문화 역시 자연스럽게 신라에 수용되었다.

그렇다면 역사학계에서는 가락국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를 과연 언제쯤으로 보고 있을까? 『삼국유사』의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수로왕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 나라를 다스린 지 150여 년이나 되었으나, 당시 이 땅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부처를 신봉하는 일이 없었다. 대개 불교가 전래되지 아니하여 토착민들이 신복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기本記』에도 사찰을 세웠다는 기사가 없다. 제8대 질지왕鎡知王2년 임진(452)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王后寺를 창건하였다. 모두 이 나라의 『본기』에 자세히 적혀 있다.

「가락국기」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수로왕의 8대손인 김질왕金口王이 정사에 부지런하고 또 도리를 숭상하여 태조의 비 허황후를 위하여 명복을 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원가元嘉29년 임술에 수로와 황후가 혼례를 올린 곳에 절을 세우고 액호額號를 왕후사王后寺라고 하였다.

‘김질왕’은 질지왕의 다른 이름이다. 이상의 두 기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5세기 무렵에야 가락국에 비로소 불교가 전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기록에서 함께 나오는 서기 452년은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이며 신라의 공인보다는 75년이 빠르다.

그러나 허황옥이 불교와 함께 이 땅에 도래했다는 설화 속의 서기 48년보다 무려 404년이 늦은 시점이니 북방전래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452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교의 남방전래설에 관한 설화와 북방전래설의 역사 사이에는 무려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적인 거리가 존재한다.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마땅하지 않다면 확증으로 삼을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 남방전래설을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이나 향토 사학자들은 대표적인 증거로 파사석탑과 쌍어문을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파사석탑과 쌍어문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방증 자료도 되지 못한다. 그저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국異國의 여인이었던 허황옥이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 돌이 과연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왔는지 우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사석탑이 실제로 불탑佛塔이었는지 판정할 근거나 자료가 전연 없다. 『삼국유사』에서조차 “수로왕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 나라를 다스린 지 150여 년이나 되었으나, 당시 이땅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부처를 신봉하는 일이 없었다. 대개 불교가 전래되지 아니하여 토착민들이 신복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던가?

그런데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굳게 믿는 해은암에서는 근래에 파사석탑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암자 뒤편의 타고봉打鼓峰에 세운 진신사리탑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석탑과는 전연 다른 양식이다. 따라서 파사석탑의 본래 모습을 상실한 오늘에 있어 타고봉의 진신사리탑이 파사석탑의 진정한 재현인지 의심스럽다. 쌍어문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쌍어문은 신어문神魚紋이라고도 부르는데, 인도 고유의 문양으로 보기가 실로 어렵다.

쌍어문을 배태한 신어사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발한다. 신어사상은 이후 서쪽으로 퍼져 나가 기독교의 '노아의 방주'라는 설화를 낳았고 급기야 기독교도임을 상징하는 문양이 되기도 하였다. 북으로 전래된 신어사상은 불교에 흡수되어 목어木魚와 목탁木鐸으로 변형되었다. 우리나라 굿판에서 떡시루에 북어 두 마리를 꽃아두는 의식도 멀리 신어사상에서 기원하였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여덟 번째 이야기 “신화와 역사의 간극 2편”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